

부처님오신날 특집

불교국 기행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영암사 불교전문대학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의 모습이 자못 진지하다.



51개의 탑이다 사람으로 2배43의 관음보살상이 모셔진 캄보디아의 앙코르를.



캄보디아 프놈펜시의 어린이들이 한국의 '은혜사'가 찍힌 T셔츠를 입고 놀고 있다.

▶ 캄보디아 불교부흥 "내일이 보인다" ▶ 베트남

▶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불교가 되살아나고 있다. 오랜 불교국으로서의 전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내전과 공산화로 친린한 불교문화 세계에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가 지난 9월부터 세계적 관광지로서 문을 열었고 베트남 불교도 여행객들에게 속속 소개되고 있다. 고난의 역사를 딛고 새롭게 일어서는 두 나라 불교의 모습을 현장취재를 통해 본다. (편집자 주)

▶ 캄보디아와 베트남, 이들 나라의 이름을 들으면 '불교의 땅'으로 불리는 대륙과 지루한 내전 그리고 월남전과 고엽제 등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두 나라의 개어나고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오로이 귀의한 순박한 농동자들과 불가사의의 문화유산들이 불교와 함께하는 두 나라의 밝은 내일을 얘기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캄보디아 불교는 7년째 되살아나기

의 이 도시에 오랜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사찰들이 곳곳에 있어 아늑함을 느낄 수 있었다. 프놈펜에서 약 120킬로미터 떨어진 캄퐁 크란 지역. 이곳에서 대규모 불교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았다. 교단차원의 회의와 지방순회회를 겸한 행사였다. 스님만 4백여명이 모인 이 행사장은 더 높은 스님의 법문을 듣고자 모인

전쟁·가난 훌훌 털고 전국민 희망심기 분주

김형준 불교TV PD 기고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만족스런 생활이 나라와 불교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국내선 여객기가 30분마다 내려 앉는 시엔펄 공항. 70인승 여객기를 가득 채워진 관광객 모두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곳은 앙코르와트였다.

12세기와 13세기에 걸쳐 크메르제국의 수도였으며 북으로는 라오스 서쪽으로는 미얀마 남으로는 말레이 반도, 그리고 동으로는 남지나해에 이르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큰 도시 앙코르에는 경탄 이경의 감동을 요구하는 압축적 힘을 가진 불가사의의 문화유산이 있었다. 2백 30평방 킬로

문화유산이지만 안타깝게도 훼손이 많이 되어 있었다.

지난 92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 다각적인 보수 복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20여년에 걸친 내전과 베트남의 침략 속에서 폐허라 동안 군화에 짓밟힌 상흔을 치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같아 가슴 아왔다.

앙코르와트에서 북쪽으로 3.5킬로미터 간 곳에 앙코르톰이 있었다. 앙코르톰은 앙코르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사원군이다. 자야바르만 7세가 관세음보살에게 바치기 위해 중건한 불탑의 업적 바이운을 보는 것은 앙코르를 찾는 즐거움의 극치였다. 51개의 탑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향해 신비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2백 43분의 관세음보살상과 고대 크메르인의 생활상을 잘 묘사하고 있는 부조물에서 세계인의 발걸음을 끌어당기는 앙코르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 베트남으로 가는 호치민행 비행기 아래로는 누렇게 굽어지는 벼공장과 구획정리가 잘된 논밭들이 보였다. 또 언뜻언뜻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 보이기도 했는데 월남전때 미군기의 용단폭격과 고엽제의 피해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는 공산화 21년의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우게 인식했다.

▶ 호치민에서 가장 큰 영암사(유아빈사)를 본 뒤는 이 절은 베트남에서 3천 밖에 없는 불교전문학교가 있어 베트남 불교교육의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불교전문학교에는 26명의 교수

와 8백 60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학생들은 3단계로 나뉜 교육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학비는 안내지만 하루 6시간씩 9개월을 공부해야 다음단계로 넘어 간다니 쉬운 코스는 아닌 것 같았다. 교육과목은 불교학 영어 한문 법률 등 다양했는데 전전 후 전전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 베트남 중앙불교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의 70%가 불교신자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에 1만여 사찰이 있고 스님은 5만여명에 이른다. 베트남 사람들은 집안에 불단을 모시고 아침 저녁마다 참배

를 하는데 불단에는 부처님뿐 아니라 도교의 신이나 조상의 사진도 함께 모셔져 있는데 이것은 도교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 불교의 특징이라고 했다.

▶ 베트남에서 한국 양식의 불탑과 한국에서 조성한 불상을 볼 수 있었다. 불탑은 28년전 년호에 주둔했던 한국의 백마부대 안의 백마사에 남아 있는 것으로 시멘트로 만든 탑의 곳곳에 흉탄 자국이 선연히 전경의 흔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었다. 불상은 년호에서 7킬로미터 떨어진 님꾸앙이란 마을의 작은 장광사(유아중광사)에 모셔져 있었다. 6년 한국의 중앙신도회가 조성 백마사에 봉안했던 이 불상은 공산화 직후 한국 불상이란 이유로 훼손 위엄을 해서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장광사를 중축



▶ 베트남 전쟁 당시 백마부대 주둔지 안에 조성된 백마사의 시멘트 탑. 흉탄흔적이 선연하다.

▶ 국민 90% 불자·3400여 사찰·스님 5만명 사찰복원·학교건립 "성스러운 탁발행렬"

▶ 시작 지금은 전국에 3천 4백여 사찰을 두고 있으며 스님은 5만여명에 이른다. 성과 불교 보다는 대승불교의 특징을 지녀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작년엔 승단 대표 7명이 스님 양성과 포교 사찰건립 지원 자발헌액의 발전을 위해 설립한 '구호중흥회 불교연합'의 구성과 목적은 헌법으로 규정되고 보호받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 90%가 불교신자인 캄보디아에서는 스님들이 각별한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은 누구나 출가생활을 해 보는 것을 위해 소수의 청년들은 과거의 단기출가 전통을 삼려 2주간의 행자생활에 참여하기도 한다. 프놈펜에서는 긴 탁발승의 행렬을 볼 수 있으며 노천에 걸린 불단 앞에서 향을 사르고 무언가를 염원하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었다. 인구 1백만

▶ 불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스님들을 호위하는 군인들의 모습은 매우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다. 그러나 이지역으로 오는 길에서 만난 다섯명의 탁발행렬은 캄보디아 불교의 재건을 잘 말해 주었다. "우리는 상보우만 절의 신도입니다. 절에 학교를 세우고 법당을 중축하기위해 닷새씩 탁발을 하고 있는데 목적지는 프놈펜입니다." 느릿느릿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은 매우 성스러웠다.

▶ 캄보디아 불교의 지도자인 범봉스님도 나라의 재건과 불교의 중흥은 하나의 문 제임을 역설 했다. "캄보디아의 오늘에 있어 불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나라의 재 건입니다. 빈곤을 풀리기위해 국민은 즐겁고 넓은 사찰을 복원하고 무엇보다 불이 부족한 지역에 우물 파주기 사업을 적극

▶ 미얀에 이르는 드넓은 불토(佛土)에 세워진 앙코르와트. 2백80여 사원과 아름다운 조각물들이 이방의 관광객들에게 크메르문명의 뛰어난 정치 아래 후손되던 아픔을 토해 내고 있는 것 같았다.

▶ 시골벽파한 매코스. 관광객을 상대로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의 한신은 5백년전에 지어진 거대한 사원의 한 부분으로 오늘을 지탱하고 있는듯 했다. 수리바르만 2세의 원력이 무엇이었는지 모를지라도 역사는 이 위대한 건축물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간의 연역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이란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오늘날의 앙코르와트와 우리가 만나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두신앙과 불교신앙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스며 있는 사원의 유물들은 오늘날 세계인의 눈길을 모으는

▶ 사회주의 이념보다 불교사상 구심역할 불교학·영어등 교육 전전후 전법사 양성

▶ 하고 싶더야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불자들이 도와 줘야 좋겠다는 말과 함께.

▶ 공산화된 파벌 국민법사단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탄압하이 스님(넌호아 천보사주지)은 백마사와 탑과 부처님 얘기 말고도 당시 백마부대장이 선물했다는 불화 두루마리도 보여주며 새로운 강화를 찾아드리는 것 같았다. 베트남 불교는 사회주의 통치 21년동안에도 국민들의 신봉을 받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 불교는 사회주의 이념을 대신해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호치민시의 변화가 서 있는 '불교와 민족을 위한 소신공양'의 주인공 탁광득 스님의 불탑에는 오늘날도 누군가가 공양한 향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 베트남

▶ 현암사 380-5011-1111 312-3729

알기 쉬운 불교 시리즈

|                   |                |             |               |                |               |            |                |             |
|-------------------|----------------|-------------|---------------|----------------|---------------|------------|----------------|-------------|
| <b>반야·유마경의 지혜</b> | <b>화엄경의 세계</b> | <b>불교개론</b> | <b>미란타왕문경</b> | <b>열반경의 세계</b> | <b>부처님 말씀</b> | <b>법구경</b> | <b>아함경 이야기</b> | <b>불교성전</b> |
| 영암대주              | 영암대주           | 영암대주        | 영암대주          | 영암대주           | 영암대주          | 영암대주       | 영암대주           | 영암대주        |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동양 고전의 정수

▶ 부처님 오신날 1 5.18-5.24 '96 서울국제도서전 부스번호 320으로 오시면 특별시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 팔만대장경 (전 4권)

虛辭辭典 虛辭小辭典

한민족을 해설할 때 걸림돌이 되는 허사 730여 개의 용법을 설명한 국내 최초의 가장 방대한 사전!

공적의 장수 김원우 편저 25000원

한민족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 허사 100여 개의 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원우 편저 10000원